

POLITICS

2025년 4월 23일 수요일

재생에너지 품은 해남 솔라시도, 첨단도시 조성

광주시 '월드IT쇼'서 투자유치 홍보관 운영...AI 등 집중 홍보

광주시와 광주경제자유구역청은 오는 24~26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리는 국내 최대 정보통신기술(ICT) 전시회 '2025 월드IT쇼'에 참가. '투자유치 홍보관'을 공동 운영한다.

올해 17회째를 맞는 '2025 월드IT쇼'는 국내·외 ICT 업계의 최신 트렌드와 혁신 기술을 한눈에 볼 수 있는 국내 최대 규모 ICT 전시회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최하는 이 전시회는 국내·외 500여개 기업이 참가하고 10만여명의 관람객이 찾을 것으로 예상된다.

광주시와 광주경제자유구청은 '대한민국 새로운 성장판. 광주' 슬로건을 내건 '공동 홍보관'을 통해 광주의 인공지능(AI)·미래차 산업 경쟁력을 알리고, 국내·외 유망 기업을 대상으로 투자유치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광주는 AI뿐만 아니라 자율주행, 친환경 모빌리티, ICT 융복합 산업 전반에 걸쳐 미래 지향적 산업기반을 구축하고 있다. 국내·외 기업이 광주에 투자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세계 혜택과 행정 지원, 협력모델 등도 폭넓게 제공하고 있다.

홍보관에서는 국가AI데이터센터 가동, 광주AI융복합지구(첨단3지구)·빛그린국가산단 기획발전특구 지정, 2024년 투자유치 우수 지자체 선정, 미래차국가산단 지정, 퓨리오사AI 등 반도체 패키징 기업 유치 성과 등 광주가 첨단산업 중심 도시로 도약하고 있는 성과들을 알린다.

이와 함께 기업 맞춤형 산업 입지 제공, 다양한 세계 혜택과 행정 지원을 통한 인재양성체계 등 실질적 투자유치를 위한 1:1 기업상담도 진행한다.

홍보관에서는 광주도시공사와 광주연인구개발특구본부가 광주 핵심 산업단지인 AI융복합지구 분양 및 입주 상담도 진행한다. 광주에 본사를 둔 '썬데이터'와 '썬보더'는 자사의 AI 서비스, 드론 기술 관련 플랫폼을 직접 전시하고 기술 상담도 병행할 예정이다.

시, 청년재단·전남대 산학단 '일역량 지원 시범사업' 추진

광주시가 제도적 지원의 사각지대에 있는 '경제선지능 청년들의 사회 참여'를 돕기 위해 나섰다.

광주시는 청년재단, 전남대학교 산학협력단과 손잡고 경제선지능 청년들에게 일 경험 기회를 제공하는 '경제선지능 청년 일역량 강화 지원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

'경제선지능 청년'은 지적장애는 아니지만 낮은 인지능력과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어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인 청년층이다.

이번 시범사업 참여자 모집은 오는 5월 23일까지이며, 경제선지능 청년의 직무역량과 사회적 관계 능력 강화를 위해 마련됐다.

이 사업은 광주에 거주하는 19~39세(1985년 6월2일~2006년 6월1일 출생자) 경제선지능 청년을 대상으로 진로상담, 맞춤형 직무훈련 프로그램 및 일 경험, 사회관계 능력향상을 위한 멘토링과 상담 등을 종합 지원한다.

올해 총 2차례에 걸쳐 80명을 지원할 예정이며, 기술별로 40명을 직무 훈련생으로 선발한다. 훈련 결과에 따라 기술별 10명에게는 실제 일경험을 쌓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직무 훈련생으로 선발된 청년은 전문상담을 통해 개인별 맞춤형 훈련계획을 수립하고 8주간 직무훈련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된다.

양동민 기자 yang00@gwangnam.co.kr

첨단산업·정주환경 균형 갖춘 미래도시로 급부상 인공지능 데이터센터·분산에너지 특구 유치 추진

전남 해남군에 조성 중인 솔라시도 기업도시가 풍부한 재생에너지 인프라와 대규모 개발 부지를 기반으로 AI 데이터센터 유치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이곳에 국제학교, 특급호텔 등 정주 여건까지 속속 갖춰지면서 산업과 삶이 조화를 이루는 미래도시로의 변모를 빠르게 갖추고 있다.

22일 BS그룹에 따르면 솔라시도는 그룹 계열사인 BS한양과 BS산업이 전남도, 해남군과 함께 조성 중인 민간 협력 도시개발사업이다. 약 2090만㎡(632만평)에 이르는 부지에 재생에너지 기반 첨단산업, 주거, 교육, 의료, 관광 등 복합

도시 기능을 접목한 계획으로 추진되고 있다.

특히 솔라시도는 AI 데이터센터 유치를 위한 최적 요건을 두루 갖추고 있다는 점에서 최근 산업계의 관심을 받고 있다. 반경 15km 이내에 총 4GW 규모의 육상 및 수상 태양광 사업이 추진 중이며, 인근 영산강 간척지에는 3GW 규모의 태양광 집적화 단지가 조성될 예정이다.

여기에 서남해안권 해상풍력(7GW)을 더하면 총 10GW에 달하는 대규모 재생에너지 공급망이 형성된다.

재생에너지를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이 같은 인프라는 RE100(기업이 사용하는 전력을 100% 재생에너지로 충당하



솔라시도 태양광발전소

겠다는 자발적 약속)을 추진하는 글로벌 기업들에게 매력적인 조건으로 작용한다.

탄소중립정책(ESG) 등 국제 규제가 강화되는 상황에서, 탈탄소 전환에 대응해야 하는 국내외 데이터센터 기업들의 관심이 높아지는 이유다.

실제로 BS그룹은 TGC, 삼성물산, LG CNS 등 주요 데이터센터 전문 기업들과 솔라시도 내 하이퍼스케일 AI 데이터센터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사업화를 추진 중이다. 이와 더불어 지난해 솔라시도는 정부로부터 '기회발전 특구'로 지정돼 소득세, 법인세, 재산세, 취득세 감면 등 다양한 세제 혜택도 확보했다.

전력 인프라 확보를 위한 노력도 본격화되고 있다. BS그룹은 지난해 10월 전남도, 한국전력과 함께 154kV급 변전소 등 전력기반 시설을 조기에 구축하기 위한 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아울러 전라남도가 추진 중인 분산에너지 특구 유치와도 연계해, 마이크로그리드 기반의 에너지 자립형 도시로 발전하는 데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러한 산업적 입지 강점과 더불어 솔라시도는 정주 인프라 구축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BS그룹은 지난 2월 미국 명문 사립학교인 레드랜즈 크리스천 스쿨(RCS)과 협약을 체결하고, 솔라시도 내 국제학교 유치를 확정했다.

학교 측은 오는 4월 말 현지를 방문해 후보지를 실사하고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호텔신라와의 위탁운영 협약을 통해 솔라시도 내 특급호텔 건립도 추진 중이며, 병원과 헬스케어 단지 유치도 함께 진행되고 있다.

BS그룹 관계자는 "솔라시도는 즉시 개발 가능한 넓은 부지와 국내 최고 수준의 재생에너지 인프라, 풍부한 용수 자원을 갖춘 입지로, AI 데이터센터를 비롯한 글로벌 첨단산업 기업들의 투자 관심이 어지고 있다"며 "산업 인프라와 정주 여건이 조화를 이루는 지속가능한 도시로 발전할 수 있도록 투자 유치와 규제 개선에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현규 기자 gnnews1@gwangnam.co.kr



김영록 전남도지사가 22일 장흥통합의학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민선8기 3차년도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에서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지방분권 실현·국가 균형발전 공약 마련을”

장흥서 대한민국 시장군수구청장협 공동회장단 회의 대선 후보자에 건의...재난재해지원 특별법 제정 추진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가 21대 조기대선 후보자들에게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 실현을 위한 공약을 마련해 달라고 촉구했다.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는 22일 장흥군 통합의학컨벤션센터에서 공동회장단 회의를 개최하고, 6·3 조기 대선에 출마한 후보들과 각 정당에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공약 마련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발표했다.

협의회는 건의문에서 실질적인 지방

자치 분권 보장 등을 위한 지방분권형 헌법 개정 추진, 재정 분권 강화 등을 위한 보충교부세 교부율 5% 인상 및 지방소멸 대응 기금 지원 5조원으로 확대, 유보통합 및 통합돌봄에 따른 재원 국가 부담 등을 공약해달라고 요청했다.

특히 이번 회의에서는 울산과 경북·경남을 중심으로 발생한 국가적 재난인 대형 산불 발생 시 개선해야 할 과제를 집중 논의했다.

최근 울산과 경북, 경남의 대형산불

을 계기로 첨단기술 AI 적극 활용한 산불 대응체계 고도화 및 감시 시스템 확대가 필요하다고 보고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와 '재난 재해지원 특별법' 제정에 나서기로 했다.

조재구 대표회장(대구 남구청장)은 "조기 대선을 앞두고 지속 가능한 대한민국 완성을 위해 지방자치분권 확대·강화 공약 건의문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축사에서 "지방분권형 헌법 개정과 재정 분권을 통한 지방의 근본적 역량 강화는 시대적 소명이자 반드시 함께 이뤄내야 할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현규 기자 gnnews1@gwangnam.co.kr

안도걸, 이재명 캠프 '핵심 정책' 수립 분주

정책본부서 후보공약 '메시지'로 담아내느라 비지땀

"광주는 인공지능(AI) 사업, 전남은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고도화해서 지역특화 사업으로 육성하는 공약을 내걸 것입니다. 거기에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을 결합하는 거죠."

이재명 후보의 대선후보 경선캠프에서 후보의 정책과 공약을 총괄해 지원하는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광주 동구남구을·사진)은 26일 호남권 순회경선을 앞두고 비지땀을 흘리고 있다.

안 의원은 지난주에는 이 후보의 충청권과 영남권 정책과 공약을 다듬고 일부 사업들을 발췌해 후보가 메시지로 전달하는 일을 해왔다.

현재 이 후보 경선 캠프에는 선거대책 위원장인 윤호중 의원 지휘 아래 각 분야별로 10개 팀이 가동되는데, 안 의원을 비롯한 6명의 의원들은 가장 핵심인 정책본부(본부장 윤후덕 의원)에 소속돼 있다.

안 의원은 "이번 대선은 예선과 본선이 따로 없다. '이재명이나', '아니나'의 구도에서 전 국민을 대상으로 메시지를 내는 것"이라며 "이 후보의 장점과 이미지에 국민이 호응하도록 정책과 비전을 설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우리 후보의 경제 정책과 공약은 성장 전략과 미래 전략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며 "지난 21일 금융투자협회에 갈 때도 후보가 이런 메시지를 원했고, 정책본부 소속 의원들과 여기에 초점을 맞춰 논

의해 사전에 메시지를 만들어 다듬었다"고 밝혔다. 광주·전남에서 발표할 공약에 대해서는 "후보가 전달할 메시지를 논의 중"이라며 "안다고 해도 사전에 밝히는 게 어렵다"고 말했다.

안 의원은 다만 광주는 AI, 전남 신재생에너지 중점으로 하는 사업들을 발표할 것이라고 귀띔했다.

특히 광주 AI사업과 관련해 안 의원은 "문재인 정부 때 지역별로 균형발전프로젝트를 내려고 했을 때, 광주는 SOC(사회간접자본)를 포기하고 인공지능을 선택했다"며 "차기 정부를 민주당 후보가 이끌게 된다면 그때의 기록권을 인정해줘야 한다"고 힘줘 말했다.

전남의 경우 미래 성장사업인 메가샌드 박스를 솔라시도에 유치하고 신재생에너지를 계통망을 구축해 연결하는 구상을 실현할 계획이다.

안 의원은 글로벌 데이터센터 지역 유치와 관련해 "한전은 기업의 수요를 확실하다는 것을 입증하라고 하고, 기업은 한전의 전력지원이 확실해야 입주가 가능하다"며 "우리 후보의 경제 정책과 공약은 성장 전략과 미래 전략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며 "지난 21일 금융투자협회에 갈 때도 후보가 이런 메시지를 원했고, 정책본부 소속 의원들과 여기에 초점을 맞춰 논

이성오 기자 solee235@gwangnam.co.kr

녹색에너지연구원, 글로벌 전력산업 연구기관 도약

키르기스스탄과 업무 협약 배전망 고도화사업 본격화

녹색에너지연구원이 해외 공적개발원조사업 등을 통해 글로벌 전력산업 역량을 키워가고 있다.

22일 녹색에너지연구원(원장 황규철)에 따르면 지난 21일 녹에원 본원에서 키르기스스탄 국가전력망 주식회사(NEGK)와 함께 키르기스스탄 국가전력망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체결식에는 황규철 원장을 비롯해 강상구 전남도 에너지산업국장, 박철주 국제관계대사, 김용준 파워플러스이앤씨 대표, 김춘성 분산에너지특구TTF 단장, 키르기스스탄 NEGK 국제협력국 아르타바예프 에밀백 국장, 에너지부 무르세이토바 베가이임 등 정부와 민간 전문가가 참석했다.

녹에원은 한국국제협력단(KOICA)의 공적개발원조사업 일환으로 키르기스스



녹색에너지연구원은 지난 21일 본원에서 키르기스스탄 국가전력망 주식회사(NEGK)와 함께 키르기스스탄 국가전력망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탄 비슈케크 일원에 배전망 고도화 사업을 본격화한다. 이번 사업은 키르기스스탄 내 분산전원 체계 구축, 운영 고도화, 시스템 안정성 향상, 에너지효율 제고 등을 목표로 하며, 중앙아시아 전력 시장 내 국내 스마트 전력기술 진출 교두보로 작용될 전망이다.

특히 이번 MOU는 사전 타당성 조사와 실증 검증 등 바탕으로 체결된 실질적 협력 성과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강상구 전남도 에너지산업국장은 "이번 MOU를 통해 전남도의 전력 인프라와

기술, 정책 등이 키르기스스탄의 전력 발전에 실질적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전남도의 신재생에너지 정책과 전력기술 공유를 통해 미래지향적인 협력관계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황규철 원장은 "에너지 공적개발원조사업이 단순 지원에 그치지 않고, 국내 기업의 해외 시장 진출 기반을 마련하는 전략적 협력 모델을 구체화한 사업이다"며 "녹에원이 글로벌 전력산업 연구기관으로 도약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다"고 밝혔다.

박정원 기자 hobu@

전남RISE센터, 전문가와 지역-대학 동반성장 모색

운영 자문위서 지역 주력산업과 대학 특성화 분야 논의

전남RISE센터는 22일 오후 본격 추진하는 RISE사업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 제1차 운영 자문위원회를 열어 전남형 사업의 발전 방향을 모색했다.

회의에서는 올해부터 5년간, 총사업비 3031억원이 투입될 전남형 RISE사업인 'GRAND 전남 5대 프로젝트'의 단위과제별 핵심목표 달성 전략과 지역-대학 동반 성장을 위한 상상경제 추진 방안을 중점 논의했다.

위원들은 최초로 추진되는 지역-대학 공동 프로젝트를 감안, 전남도의 주력·미래산업에 대한 특성화 분야와 적극 연계되도록 소통 강화, 성과관리 등 상시 점검체계 구축, 전폭적인 예산 지원 등을 강조했다.

자문위원회에서 제시된 발전 방향은 향후 대학별 사업계획서의 수정·보완을 위한 컨설팅 진행 시 최대한 반영될 예정이다.

전남RISE센터 운영 자문위원회는 범회승 전남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을 비롯해 문승현 광주과학기술원 명예교수, 최응국 전남대학교 명예교수, 김형순 테크로한경사 비스 이사, 김현철 전남연구원 부원장, 이정관 전남테크노파크 기업진흥본부장 등 산·학·연 최고 전문가 7명으로 구성됐다.

앞으로 자문위원회는 센터 조직 운영과 주요 추진계획의 발전전략 제시, 전남형 RISE사업의 성과지표 달성 방안과 추가 신규사업 제안 등 전남위주 정책자원을 논의할 예정이다.

전남RISE센터는 이달 초 지역 17개 대학을 대상으로 단위과제별 추진대학 선정 평가를 완료했다. 5월부터 본격적으로 착수할 대학별 프로젝트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사업계획 보완 및 예산 교부 절차를 준비하고 있다.

이현규 기자 gnnews1@gwangnam.co.kr